

## Chapter 4. Trend Review I

# 유튜브 콘텐츠 트렌드: 시가 대체할 수 없는 마지막 한 가지

글 | 안녕자유 유튜버 hellofree2626@gmail.com



그림 안녕하세요원이입니다잘부탁드립니다 채널 영상 캡처

사랑받는 인물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완성형이 아니라 진행형이라는 점이다. 다듬어진 결과보다, 다듬어지지 않은 채 애쓰는 모습이 더 오래 남는다.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완벽한 사람보다 애쓰는 사람 곁에 더 오래 머문다.

요즘 유튜브를 보면 이 흐름이 하나의 트렌드로 굳어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유튜브에서 통하는 공식은 명확했다. 좋은 기획, 좋은 장비, 좋은 편집. 이 세 가지를 갖추면 채널은 자란다고 믿었다. 그런데 요즘 유튜브에서 정작 대중을 움직이는 콘텐츠는 그 반대편에서 나오고 있다. 잘 갖춰지지 않았던 시절, 아무도 보지 않던 그 시절의 흔적이 오히려 채널의 가장 강력한 자산으로 재평가되는 중이다.



그림 RESCENE 채널 shorts 영상 캡처

결그룹 리센스가 그렇다. 2024년에 데뷔했지만 2년 가까이 이름조차 낯설던 팀이었다. 대형 기획사의 물량도, 화려한 세계관도 없었다. 아티스트가 단 한 팀뿐인 작은 회사가 회사의 모든 것을 걸고 만든 그룹이었다. 그런데 리더 원이가 연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터진 '거제 야호' 한마디가 판을 뒤집었다. 일본인 멤버가 가루 분장을 하고 던진 그 인사말은 맥락도 뜻도 불분명했지만, 알고리즘은 정확히 그 지점을 물었다. 영상은 수백만 뷰를 넘겼고, 2년 전에 발매됐던 노래 '러브 어택'이 멜론 차트 900위권에서 톱 10까지 역주행했다. 결국 실시간 차트에서는 1위까지 오르기도 했다.

여기서 끝났다면 그저 흔한 밈 하나로 지나갔을 것이다. 그러나 대중은 곧이어 이 팀의 뒷이야기를 알게 됐다. 멤버들이 밤 10시 반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다섯 시간 넘게 라이브 방송을 이어갔다는 것, 개인 휴대폰도 없이 공용 휴대폰을 나눠 쓰며 버텼다는 것, 멜론 차트 톱 100에만 들어도 서울에서 거제까지 뛰어가겠다는 반쯤 자조 섞인 공약을 걸었다는 것.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그 2년이라는 시간이 뒤늦게 밝혀지자 성공의 배경이 아니라 성공의 이유가 됐다.

비슷한 시기, 일반인이었던 유튜버에게도 같은 패턴이 반복됐다. 충주시 홍보맨으로 이름을 알렸던 김선태가 독립 유튜버로 전향한 뒤에도 꾸준히 화제를 만든 일이다. 공무원 조직 안에서 정직하고 우직하게 지역 홍보 콘텐츠를 만들던 사람이 홀로서기를 한 뒤에도 대중이 계속 응원한 이유는 단순하다. 어색한 화법과 투박한 편집, 예산도 인력도 부족했던 시절을 그대로 노출했던 시간이 있었기에, 독립 이후의 행보에도 응원이 따라붙었다.



김선타 유튜브가 구독자 100만을 달성했습니다



총주맨이다 우와 안녕하세요

그림 김선타 채널 영상 캡처

두 사례를 나란히 놓으면 지금 유튜브 생태계를 관통하는 하나의 트렌드가 보인다. 사람들은 지금의 결과물이 아니라, 그 결과물이 아직 아무것도 아니었을 때의 시간을 함께 산다는 것이다. 예전에는 무명 시절을 감추고 싶은 과거로 취급했다. 지금은 다르다. 무명 시절은 채널이 성장한 뒤에도 절대 다시 만들 수 없는 유일한 자산이 된다. 구독자가 십만 명을 넘긴 채널이 아무리 좋은 장비로 촬영해도, 아무도 보지 않던 시절의 그 어설픈 화면은 다시 찍을 수 없다. 이미 늦었기 때문이다. 돈으로는 세트도 사고 조명도 사고 편집자도 살 수 있지만, '아무도 몰랐던 시절'만큼은 돈으로 살 수 없다. 이미 유명해진 다음에 무명 흥내를 내는 콘텐츠는 아무리 잘 만들어도 가짜 티가 난다. 대체 불가능하다는 것, 이것이 지금 이 흐름이 단순한 감동 코드가 아니라 자산으로 취급되는 이유다.

서사는 정보가 아니라 시간이다. 밤새 이어진 라이브, 부담을 무릅쓰고 연 개인 채널, 아티스트가 하나뿐인 회사가 전부를 건 선택. 이런 조각들은 어느 하나만 놓고 보면 대단할 것이 없다. 그러나 시간 순서대로 쌓이면 이야기가 된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완성된 상품보다 훨씬 끈질기게 사람의 마음에 남는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서사가 기획된 것이 아니라 발견됐다는 점이다. 리센느의 소속사는 처음부터 '중소돌의 기적'이라는 서사를 팔지 않았다. 오히려 편집되지 않은 라이브 방송과 서툰 개인 채널 콘텐츠 속에서 진짜 서사가 새어 나왔다. 사람들은 잘 짜인 이야기가 아니라 새어 나

온 이야기에 반응한다.

김선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는 자신을 스타로 포장한 적이 없다. 투박한 태도를 그대로 노출했고, 그 날 것의 화법이 오히려 신뢰를 만들었다. 대중이 그를 계속 지켜본 이유는 실력이 갑자기 늘어서가 아니라, 이미 그의 출발점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서사는 이렇게 한 번 새겨지면 이후의 모든 행보에 이자를 붙여 돌려준다. 새로운 영상 하나를 올려도, 사람들은 그 영상만 보는 게 아니라 그가 걸어온 시간까지 함께 본다. 지금 유튜브 트렌드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다. 채널이 자라는 방식이 '더 잘 만드는 것'에서 '아무도 안 볼 때를 얼마나 남겨뒀는가'로 옮겨가고 있다. 실제로 최근 급성장한 채널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초기 영상을 지우지 않는다. 오히려 조회수 몇십 회에 머물던 영상을 알고리즘이 뒤늦게 끌어올릴 때, 그 낙차가 채널 전체의 신뢰로 전환되는 걸 목격할 수 있다. 무명 시절의 조회수 낮은 영상은 이제 흑역사가 아니라 증거물이다. 내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유일한 물증이기 때문이다.

이 흐름은 숏폼 알고리즘의 작동 방식과도 맞닿아 있다. 예전에는 채널의 첫인상이 곧 그 채널의 전부였다. 첫 영상이 별로면 다음 영상까지 볼 이유가 없었다. 그런데 지금의 알고리즘은 콘텐츠 하나하나를 독립적으로 노출시킨다. 3년 전에 조회수 두 자릿수로 묻혀 있던 영상도 특정 순간에 다시 추천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시청자가 그 오래된 영상 밑에서 지금의 인기



그림 엠뚜루마뚜루 채널 영상 캡처

를 확인하는 댓글을 발견하는 순간, 무명 시절은 부끄러운 흔적이 아니라 시간 여행하듯 확인 가능한 증거가 된다. 알고리즘이 과거를 지우지 않고 소환하는 구조로 바뀌면서, 무명 시절을 감추는 채널과 남겨두는 채널의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다.

여기서 창작자가 놓치기 쉬운 함정이 있다. 서사를 '좋은 이야기'로 착각하는 것이다. 좋은 이야기는 감동적으로 편집된 하이라이트지만, 서사는 편집되지 않은 시간의 누적이다. 리센느의 서사가 힘을 가진 이유는 성공 이후에 과거를 미화해서 들려줬기 때문이 아니다. 성공하기 전부터, 아무도 보지 않을 때부터 같은 방식으로 콘텐츠를 쌓아왔기 때문이다. 밤새 이어진 라이브도, 반응 없던 개인 채널도 애초에 '언젠가 이 서사가 팔릴 것'을 계산하고 만든 것이 아니었다. 그저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계속했을 뿐이고, 그 꾸준함이 나중에야 서사로 읽힌 것이다.

이 차이는 채널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꽤 중요하다. 서사를 얻고 싶다는 이유로 없는 고생을 지어내거나, 무명 시절을 뒤늦게 연출하는 순간 그 서사는 바로 힘을 잃는다. 무명은 지나간 뒤에만 증명되는 시간이라, 미리 준비해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다. 대중은 눈이 밝다. 진짜 시간이 쌓여서 나온 서사와, 서사처럼 보이도록 편집된 장면을 결국 구분해 낸다. 리센느에게 쏟아진 애정이 쉽게 식지 않을 것이라 예상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들의 무명 시절은 성공을 위해 준비된 각본이 아니라, 이미 지나가 버려서 아무도 되돌릴 수 없

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지금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이 배울 지점은 명확해진다. 지금 이 순간 반응이 없다고 해서 그 시간을 지우거나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지금의 무반응이야말로 나중에는 다시 살 수 없는 재료다. 채널이 자란 뒤에는 아무리 큰 자본을 들여도 이 시절만큼은 다시 찍을 수 없다. 화려한 결과물 하나보다, 아무도 보지 않던 시절을 지우지 않고 남겨두는 것. 이것이 리센느와 김선태가 동시에 증명하고 있는, 지금 유튜브에서 가장 값이 오른 재료다. 그리고 지금 이 시절을 지나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 자체가 이미 나중에 팔릴 수 없는 진심의 증거를 쌓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질문은 이것이다.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보다, 아무도 안 보는 지금 이 시간을 지울 것인가 남길 것인가. 서사는 그 질문에 답하는 사람에게만 도착하는 결과물이다.



#### 필자 | 안녕자유

서강대학교 지식융합미디어학부를 전공했다. 유튜브 채널 '안녕자유'와 강의 플랫폼 '프리덤 클래스'를 운영하며 유튜브 수익화 교육과 ai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유튜브와 sns 트렌드를 읽고 온라인에서 수익화하는 일을 5년째 하고 있다.